"전두환, 5·18때 공작부대 운영했다"

5·18기록관 '공작작전' 소개
요원 시민군 잠입 시위 선동
민간인 위장 유언비어 유포
광주 출신 홍대령이 통합 지휘

전두환(88·옛 보안사령관)씨가 5·18 당시 특수 공작부대를 광주에 투입해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아세우며 유혈진압의 명분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공작요원들은 시민군에 잠입해 과격 시위 선동을 하며, 북한군 투입설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다.

14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 편의대 정밀 투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군부의 공작 작전을 소개했다. 편의대란 중국에 실존했던 '편의공작대'(便衣工作隊)의 줄임말로, 부대원들이 사복 차림으로 적지(敵地)에 침투해 첩보 수집·선동 등 특수임무을 수행하는 부대를 지칭한다.

5·18기록관은 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사태감독관'이라는 밀명을 받은 광주 출신 홍 대령이 편의대를 통합 지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는 홍 대령이 1980년 5월 20일 광주시 남구 사동에 비밀 아지트를 마련하고, 광주 시내에서 활동중인 정보조를 통합지휘한 후 6월8일 보안사로 복귀했다고 밝히고 있다. 1995년 '5·18 관련 사건 검찰수사결과'에서도 '홍 대령이 시민과 시위대와의 분리공작을 추진했다'고 나와있다. 다만 현재까지 홍 대령이 광주에 있었던 19일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편의대는 505보안부대, 7·11·3공수여단, 정보사령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31사단, 중앙정보부,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사 소속 사진병이었던 김모(62)씨도 지난해 5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평소 사복을 입고 머리도 길러 민간인과 구분되지 않았다"며 "1980년 5월27일 도청 진압 전 정보대 요원들이 미리 도청에 들어가 무기(총)공이를 다 빼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5·18기록관은 이들이 시민들을 폭도로 몰기 위해 과격 시위를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5·18 당시 유포됐던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는 악성 유언비어도 광주시민들을 자극하려는 편의대의 계략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1979년 10월 16~20일 부마항쟁이 일어난 부산과 마산에서도 '전라도 군인이 와서 경상도 사람 다 죽인다'는 비슷한 유언비어가 돌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5·18 직후 보안요원들은 광주시청에 들러 자신들이 퍼뜨린 유언비어가 제대로 유통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1980년 5월23일에는 북한 간첩 이창룡이 서울에서 잡혔는데 보안사는 '북한 간첩이 광주 잠입을 시도하다가 계엄군의 검문검색으로 포기하고 배회하던 중 붙잡혔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5·18과 관련이 없다고 판명났다.

5·18 당시 전남도청 상황실에도 편의대가 잠입해 시민군으로 행색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들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나의갑 5·18기록관장은 "앞으로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홍성률 대령의 광주 행적과 편의대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청년일자리 매칭데이 14일 광주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일굼 기업상생#일자리 매칭데이' 행사에서 구직 청년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낙석사고 절반 3·4월 발생
봄철 해빙기 산행 '주의'

추위가 풀리는 봄철은 산에 가기 좋은 계절이지만, 사고 위험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2018년 낙석사고는 총 33건 발생했는데 3월 10건, 4월 7건 등으로 3~4월에 52%가 집중됐다.

행안부는 "봄철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낙엽 아래에는 얼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밟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봄철은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도 늘어나는 시기다.

2013~2017년 등산사고는 2월 2183건에서 3월 2349건, 4월 2873건, 5월 3907건 등으로 늘어났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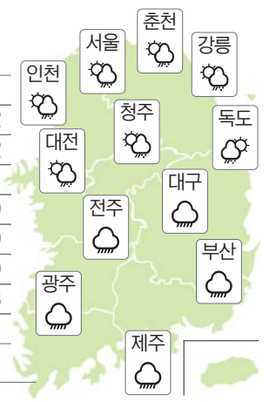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6:44	달뜸	12:12
해짐	18:39	달짐	01:55

우산 챙기세요

비오고 바람 강하게 불겠다.

광주	비	4/11	보성	비	1/11
목포	비	6/12	순천	비	3/12
여수	비	6/12	영광	비	4/12
나주	비	1/13	진도	비	7/11
완도	비	7/14	전주	비	5/10
구례	비	0/10	군산	비	6/10
강진	비	3/13	남원	비	2/10
해남	비	4/13	흑산도	비	6/13
장성	비	2/1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	서~북서	2.0~4.0
	먼바다	남서~서	1.0~2.5	서~북서	3.0~4.0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	서~북서	1.0~2.5
	먼바다(동)	남서~서	1.0~2.0	서~북서	2.0~4.0
	먼바다(서)	남서~서	1.0~2.5	서~북서	2.0~4.0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0:34	08:12
	13:36	20:17
여수	09:15	03:03
	21:46	15:13

◇ 주간 날씨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2/12	3/13	2/16	4/18	6/15	7/14	2/14

광주경찰 스쿨존내 교통사고 제로화 도전

광주지방경찰청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다양한 예방활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건수는 급감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모두 사라질때 까지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게 광주경찰의 의지다.

14일 광주지방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전체 어린이교통사고와 사망자 숫자는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광주에서 총 416건 발생, 552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없었다. 2017년에 비해 사고 건수는 9.4% 감소했고 사망자는 100%, 부상자는 0.4% 각각 감소했다.

광주경찰은 이날 광주 북구 용두초등학교에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협력단체 약 70여명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019년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특성화고 인문과목 교사들 몰아치기 수업에 녹초
수·목·금 전일제 실습 고수
월·화 내리 5시간 수업 예사

"광주공고 인문과목 교사들 수업 시간표에는 숨구멍이 없다.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해 시간표를 조정해달라."

광주공업고등학교 일부 교사들이 수업 시간표가 불합리하게 짜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전문교과(기계·건축 등) 교사들이 수·목·금 전일제 실습을 고수하다보니, 인문과목 교사들의 수업이 월·화에 집중 돼 내리 5시간을 수업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것이다.

14일 광주공고 교사별 시간표를 보면, 영어를 가르치는 이모 교사는 월·화 모두 5시간 연속 수업을 하고 있다. 사회과목을 맡은 박모 교사도 월·화 모두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연속 수업이다. 국어과목 변모 교사, 화학 담당 김모 교사 역시 월·화 모두 연속 5시간을 수업한다. 중국어 담당 이모 교사의 경우 1주일에 18시간 수업하는데 3시간 연속 수업하는 날이 이틀이다.

인문과목 교사 일부는 수업쏠림 피해가 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돌아간다며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문과목 교사들이 관행대로 수·목 또는 수·목·금에 전일제 실습을 고수해 일어난 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측은 "인문과목 교사들의 문제제기를 이해한다"면서도 "교사들 수업쏠림 문제는 우리 학교뿐 아니라 공업·상업고 등 실습을 하는 특성화고 대다수에서 되풀이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어 "실습의 경우 기계 예열, 실습 후 청소·정리 문제가 있어 오전 또는 오후만 하기엔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다. 문제제기를 받고 몇 차례 시간표를 손봤으나 한계가 있다. 교사들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는 한 뾰족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역시 "선 채로 5시간을 연속 그것도 며칠씩 수업하는 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대안 제시를 위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울증, 20대·70대에서 급증…"상담·약물 치료해야"

20대 청년층과 70대 이상 노령층에서 조울증(양극성 장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조울증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조울증은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기분이 지속하는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정신장애로 약물치료나 상담 등 꾸준한 치료를 해야 한다.

2017년 조울증 진료인원은 8만6706명으로 2013년 7만1687명보다 21.0%(연평균 4.9%)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노령층과 20대 청년층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은 70대 이상이 12.2%로 전체 연령대 연평균 증가율 4.9%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연평균 증가율이 8.3%로 그 뒤를 이었다.

/채희종 기자 chae@